

◇ Ravitch 술식으로 교정한 누두흉 치험 40례

김하늘루, 최강주, 이양행, 조광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 백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Ravitch 술식으로 치료한 누두흉의 수술전후의 교정정도를 비교하여 수술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수술시기에 따른 교정효과 및 수술후 합병증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 부산 백병원 흉부외과 교실에서는 1984년부터 1997년까지 Ravitch 및 변형술식을 시행한 40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연령별 분포는 2세에서 34세까지였고 5세 이하가 19례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남녀비는 7:1로 남자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결과 : 교정술은 전례에서 Ravitch 및 변형술식으로 시행하였고 K-wire를 사용한 경우가 15례, 내고정판[Int. plate]을 사용한 경우가 2례였고 대개 술후 3개월에 제거 하였다. 술후 합병증은 상처감염으로 인한 창상파열이 14례로 가장 많았다. 수술전후의 함몰 교정의 정도는 수술후 어느정도 흉벽이 고정되는 시기인 3개월 후의 단순 흉부 측면 사진상 흉골의 내측면과 척추체부 사이의 최단거리로 측정하였는데 최소 0.4cm에서 최대 4cm까지의 교정이 이루어졌다. 술후 흉벽교정술에 대한 만족도는 Humphreys 평가 기준상 excellent 6례, good 29례로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결론 : Ravitch 술식은 비대칭성 및 대칭성 기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구흉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수술직후부터 안정된 흉벽을 유지하지 못해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과 흉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 삽입한 인공 삽입물로 인한 술후폐천공, 창상감염, 기흉 및 혈흉 등을 야기하는 단점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수술시기의 적절한 선택으로 상기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 할 수 있었으며 실제 합병증 발생율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책임저자:조광현(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발표자:김하늘루(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